

코로나19를 경험한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우울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송민선¹, 정현식^{2*}

¹건양대학교 간호대학, ²건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The Effects of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Senior Undergraduates who Experienced COVID-19

Min Sun Song¹, Hun Sik Jung^{2*}

¹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Konyang University

요약 고학년 대학생들은 취업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어 막연한 취업불안의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경험한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우울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인 취업불안, 우울,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취업준비행동을 자가설문하도록 하여 142명이 최종 참여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은 학년, 전공, 취업부서 이용, 취업준비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중 인문 사회계열($\beta=-.28, p<.001$), 취업준비기간이 1년 미만($\beta=.28, p=.001$), 취업준비기간이 1년 이상($\beta=.35, p<.001$), 우울($\beta=.17, p=.027$)이었고, 이러한 변수들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21.5%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과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공별 맞춤형 취업지원이 필요하며 취업준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고려한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Senior undergraduate students are going through a period of considerable anxiety because they are unsure of finding suitable work.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senior undergraduates who experienced COVID-19.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April 23 to July 5, 2023, and 142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a self-completed questionnaire on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depended on grade, major, use of the employment support department, and period of preparation for employment. Factors that influence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were majoring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eta=-.28, p<.001$), an employment preparation period of less than 1 year ($\beta=.28, p=.001$), an employment preparation period of more than 1 year ($\beta=.35, p<.001$), and depression ($\beta=.17, p=.027$), and these factors had an explanatory power of 21.5%. Our results show that tailored employment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each major and that differences i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major and period of preparation for employment should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senior undergraduates. Furthermore, it is believed that continuous intervention is needed to address the psychological problems of senior undergraduates associated with the burden of preparing for employment.

Keywords : College Student, Anxiety, Depression, Major, Supported Employment

*Corresponding Author : Hun Sik Jung(Konyang Univ.)

email: jhs3010@konyang.ac.kr

Received August 3, 2023

Revised September 4,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청년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1]. 대학생들은 취업난이 대두되면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스트레스와 취업에 실패한 후의 심리적 압박에 대한 취업불안을 느끼고 있다[2]. 특히 현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3, 4학년에 해당하는 고학년 대학생들은 취업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어 막연한 취업불안의 시기를 겪고 있다[3].

최근 급변하는 사회는 대학생들의 구직자 증가, 대졸 실업의 문제,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준비행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생활비 마련 등으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다보니 취업을 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행동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4]. 설상가상으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은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였으며, 현재 청년들이 체감하는 청년고용률은 40% 미만이라고 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불안 82.6%, 우울감 55.3%를 호소하는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5].

개인이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그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대처행동을 하게 되며, 특정 긴장 요인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발생시킨다는 Agnew [6]의 일반긴장이론을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은 취업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hi와 Lee [1]는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취업불안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학생들의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당면한 취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로준비행동보다 협소한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7]. 취업준비행동이란 직업을 준비하거나 취직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행동 혹은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행동을 말한다[7]. 이러한 취업준비행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진로문제 해결과 진로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생각인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있다[8]. 대학생이 지각하는 역기능적 진로사고

는 취업준비행동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8], Na와 Lee [9]의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 중 의사결정혼란은 취업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수행불안과 외적갈등은 취업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결국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진 대학생의 경우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취업준비행동을 더 어려워하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10].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의 시기가 빠를수록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시작시기가 늦어지거나 부족할 경우 결국 취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11]. 따라서, 자신이 정한 진로목표에 보다 가까워지는 행동, 즉 여러 진로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방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준비행동 등의 행동 수준이 낮다는 것으로 결국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확인하여 취업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진로사고를 가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전공 대학생의 경우 전공만족도를 제시한 Kim [13]의 연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직업가치관을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Ahn과 Park [14]의 연구 등 주로 일부 전공별로 대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부정적 정서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취업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Kweon [8]의 연구,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 대상의 취업불안 중 개인적인 요인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Lee와 Han [15]의 연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기존 연구들은 대학생 전체 혹은 단일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를 경험한 고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정서와 취업을 준비하는데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취업준비행동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취업불안과 우울의 부정적 정서 변수들과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취업준비에 고민이 많은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우울,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취업준비행동을 확인하고,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학년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우울,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취업준비행동을 파악한다.

셋째, 고학년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우울,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2.3.2 취업불안

취업불안은 Cho [19]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8문항 3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취업불안상태 10문항, 취업불안유발상황 11문항, 취업불안유발원인 7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불안이 높음을 나타낸다. Cho [1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95였으며, 하위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9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이었으며, 하위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94이었다.

2.3.3 우울

우울은 Chon, Choi와 Yang [20]이 국내에서 사용되던 한국판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를 종합하여 새롭게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평가 척도이며, '극히 드물게' 0점에서 '거의 대부분' 3점의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총점이 16점 이상이면 경증 우울, 21점 이상이면 중등도 우울, 25점 이상으로 중증 우울로 분류하였다. Chon 등[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91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이었다.

2.3.4 역기능적 진로사고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Lee, Choi와 Park [21]의 한국 표준화 도구를 기반으로 Yun [2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 3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적갈등 4문항, 의사결정혼란 3문항, 수행불안 5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평가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높음을 나타낸다. Lee 등[21]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 신뢰도 Cronbach α 는 .94였으며, 하위영역은 .63~.89였다. Yun [22]의 연구에서 하위영역 신뢰도 Cronbach α 는 .68~.8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었으며, 하위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8~.79이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우울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C지역 소재 K대학교 3, 4학년 고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학생 158명을 편의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수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16], 회귀분석을 위하여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17]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5를 설정하였으며, 예측변수 13개로 하였을 때, 144명이 산출되어, 탈락율을 고려하여 158부를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이 미흡한 16부(탈락율 10.1%)를 제외하고 총 14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본 연구자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취업장벽[17]과 구직효능감[18]에 대한 연구들을 근거로 성별, 연령, 학년, 평균 평점, 전공, 거주 형태, 취업지원 부서 이용, 취업준비기간, 희망직종, 주

2.3.5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취업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Au 등[7]이 연구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0문항 6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식직 직업탐색 6문항, 비공식직 직업탐색 10문항, 취업준비강도 2문항, 취업준비노력 6문항, 예비적 직업탐색 6문항, 적극적 직업탐색 1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평가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Au 등[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96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 .79~.9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이었으며, 하위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90이었다.

2.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C지역 K대학교 게시판에 모집문건을 부착하여 해당 연구 참여를 원하는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를 얻은 후 연구보조원이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제공하고,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답례품으로 문구류를 제공하였으며, 설문지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승인번호: KYU-2023-03-034-003)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부호화하여 관리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 후 보관기간이 끝난 후에는 파일을 영구삭제하고 관련 서류는 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2.6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고학년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취업불안, 우울,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취업준비행동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고학년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

비행동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를 시행하였다. 셋째,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우울,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확인하였다. 넷째,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42명으로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은 평균 23.55 ± 1.53세(범위 21~31세)이며,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24세 미만이 86명(60.6%)으로 많았다. 성별은 남자는 44명(31.0%), 여자는 98명(69.0%)이었으며, 학년은 4학년이 86명(60.6%)으로 많았고, 평균 평점은 3.5점 이상~4.0점 미만이 59명(41.6%)으로 많았다. 전공은 보건계열 45명(31.7%), 자연 및 공학 계열 22명(15.5%), 인문사회계열 43명(30.3%), 예체능계열 32명(22.5%)이었다. 거주형태는 자취가 80명(56.3%)으로 많았다.

취업지원 부서를 이용하지 않은 군이 96명(67.6%) 취업준비기간이 1년 미만인 군이 66명(46.5%)으로 많았다. 희망직종이 있는 군이 134명(94.4%)으로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다고 응답한 군이 88명(62.0%)으로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or n (%)
Age (year)		23.55±1.53
	<24	86 (60.6)
	~≥24	56 (39.4)
Gender	Male	44 (31.0)
	Female	98 (69.0)
Grade	Junior	56 (39.4)
	Senior	86 (60.6)
Grade point average		3.0~<3.5
	≥3.5~<4.0	59 (41.6)
	~≥4.0	27 (19.0)

Major	Health sciences	45 (31.7)
	Natural sciences & Engineering	22 (15.5)
	Humanities & social sciences	43 (30.3)
	Arts & physical education	32 (22.5)
Place to living	Home	31 (21.8)
	Studio apartment	80 (56.3)
	Dormitory	31 (21.8)
Use of employment support department	No	96 (67.6)
	Yes	46 (32.4)
Job preparation period	None	59 (41.5)
	<1 year	66 (46.5)
	~≥1 year	17 (12.0)
Desired occupation	Have	134(94.4)
	None	8(5.6)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8 (5.6)
	Normal	46 (32.4)
	Good	88 (62.0)

3.2 대상자의 취업불안, 우울,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취업준비행동

대상자의 취업불안, 우울,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취업준비행동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취업불안은 2.81 ± 0.81 점으로, 하위영역 중 취업불안상태는 2.46 ± 0.79 점, 취업불안유발상황은 2.94 ± 0.99 점, 취업불안유발원인은 3.11 ± 0.91 점이었다. 우울은 0.68 ± 0.28 점이었으며, 우울이 없는 대상자는 99명(69.7%), 경증 우울은 28명(19.7%), 중등도 우울은 9명(6.4%), 중증 우울은 6명(4.2%)이었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2.47 ± 0.76 점으로, 하위영역 중 외적갈등은 2.06 ± 0.78 점, 의사결정혼란은 2.62 ± 0.94 점, 수행불안은 2.70 ± 0.85 점이었다, 취업준비행동은 2.61 ± 0.65 점으로, 하위영역 중 공식적 직업탐색은 2.48 ± 0.76 점, 비공식적 직업탐색 2.76 ± 0.78 점, 취업준비강도는 2.47 ± 0.92 점, 취업준비노력은 2.68 ± 0.82 점, 예비적 직업탐색은 3.25 ± 0.77 점, 적극적 직업탐색은 2.14 ± 0.83 점이었다.

Table 2.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senior undergraduates (N=142)

Variables	Categories	Mean±SD/n(%)
Job-seeking anxiety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ndition from job-seeking anxiety	2.46±0.79
	Situation of arousing job-seeking anxiety	2.94±0.99
	Factor of arousing job-seeking anxiety	3.11±0.91
	Total	2.81±0.81
Depression	None	99 (69.7)
	Mild depression	28 (19.7)
	Moderate depression	9 (6.4)
	Severe depression	6 (4.2)
	Total	0.68±0.28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External conflict	2.06±0.78
	Decision-making confusion	2.62±0.94
	Performance anxiety	2.70±0.85
	Total	2.47±0.76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Political job exploration	2.48±0.76
	Nonpolitical job exploration	2.76±0.78
	Strength level of effort for employment	2.47±0.92
	Endurance level of effort for employment	2.68±0.82
	Preliminary job exploration	3.25±0.77
	Positive job exploration	2.14±0.83
	Total	2.61±0.65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17, p=.002$), 4학년이 3학년보다 취업준비행동이 높았다. 전공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으며($F=4.89, p=.003$), 사후검정 결과, 보건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취업준비행동이 높았다. 취업지원 부서 이용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으며($t=-3.17, p=.002$), 취업지원 부서를 이용한 군이 이용하지 않은 군보다 취업준비행동이 높았다. 또한, 취업준비기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으며($F=11.15, p<.001$), 사후검정 결과, 취업준비기간이 1년 미만인 군과 1년 이상인 군이 취업준비를 하지 않은 군보다 취업준비행동이 높았다.

Table 3.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 or F (p)	Scheffé
Age (year)	<24	2.61±0.70	0.05 (.959)	
	~≥24	2.60±0.56		
Gender	Male	2.48±0.60	-1.63 (.106)	
	Female	2.67±0.66		
Grade	Junior	2.40±0.62	-3.17 (.002)	
	Senior	2.74±0.63		
Grade point average	3.0~<3.5	2.60±0.71	0.59 (.553)	
	≥3.5~<4.0	2.57±0.59		
	~≥4.0	2.73±0.61		
Major	Health sciences ^a	2.86±0.57	4.89 (.003)	a)<b, a)<c
	Natural sciences & engineering ^b	2.52±0.59		
	Humanities & social sciences ^c	2.36±0.68		
	Arts & physical education ^d	2.65±0.63		
Place to living	Home	2.42±0.85	1.74 (.179)	
	Studio apartment	2.68±0.55		
Use of employment support department	Dormitory	2.61±0.62		
	No	2.50±0.69		
Job preparation period	Yes	2.82±0.49	-3.17 (.002)	
	None ^a	2.34±0.61		
	<1 year ^b	2.74±0.57		
Desired occupation	~≥1 year ^c	3.01±0.68	11.15 (<.001)	a)<b, a)<c
	Have	2.63±0.63		
	None	2.23±0.87		
Subjective health status	Have	2.63±0.63	1.71 (.089)	
	None	2.23±0.87		
	Poor	2.44±0.63		
Subjective health status	Normal	2.55±0.66	0.71 (.494)	
	Good	2.66±0.64		

3.4 대상자의 취업불안, 우울,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취업불안, 우울,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취업불안과 우울($r=.36, p<.001$), 역기능적 진로사고($r=.76, p<.001$)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울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40, p<.001$), 취업준비행동은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18, p=.03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senior undergraduates (N=142)

Variables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r (p)$			
Job-seeking anxiety	1			
Depression	.36 (<.001)	1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76 (<.001)	.40 (<.001)	1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06 (.514)	.18 (.035)	-.04 (.616)	1

3.5 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 영향요인

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전공, 취업지원 부서이용, 취업준비기간을 더미처리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우울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85~.99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1~1.18로 기준치인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2.072로 2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충족하였고, 이에 회귀모형 사용은 적합함으로 판단하였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variables influencing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senior undergraduates (N=142)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21	0.132		16.72	<.001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s)	-0.40	0.105	-.28	-3.77	<.001
Job preparation period (<1 year) ^a	0.36	0.105	.28	3.45	.001
Job preparation period (~≥1 year)	0.69	0.158	.35	4.40	<.001
Depression	0.39	0.174	.17	2.24	.027
F=10.63 (p<.001) R ² =.237 Adjusted R ² =.215					

^aDummy variables: Major (referent: health sciences); Job preparation period (referent: none)

분석결과 모형은 유의하였고($F=10.63$, $p<.001$), 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 영향요인은 인문 사회계열($\beta=-.28$, $p<.001$), 취업준비기간이 1년 미만($\beta=.28$, $p=.001$), 취업준비기간이 1년 이상($\beta=.35$, $p<.001$), 우울($\beta=.17$, $p=.027$)이었고,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21.5%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우울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코로나19를 대학생활에서 경험한 3, 4학년의 고학년 대학생으로 1년 이상 취업준비를 한 학생은 12.0%였으며, 취업지원 부서를 이용한 학생은 32.4%에 불과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Jeong 등[23]의 연구에서도 취업준비로 전공 성적 관리와 자격증 취득 외의 다른 활동들은 낮은 비율이었던 점을 보더라도 다른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업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내 취업 프로그램의 홍보 또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은 전체 평균 2.61점으로 예비적 직업탐색이 3.2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적극적 직업탐색이 2.14점으로 가장 낮았다. Au 등[7]은 재학생들이 구직자와 재직자보다는 취업준비행동이 낮다고 하였는데, 이는 취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재학생들은 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영역은 대학생들의 경우 예비적 직업탐색이 가장 높고, 적극적 직업탐색이 가장 낮은 Kweon [8]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 중 높은 점수를 보인 예비적 직업탐색은 학점관리 및 외국어 준비, 자격증 취득, 취업준비특강 수강의 행위로 고학년 대학생들임을 고려할 때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준비와 취업관련 교과목 및 특강을 주로 수강하고 있어 예비적 직업탐색 점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고학년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은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으며, 이는 4학년이 3학년보다 취업준비행동이 높다고 한 Seo 등[2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전공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에서는 보건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취업준비행동이 높았다. 이는 Jeong 등[23]의 연구에서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전공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는데 보건계열이 다른 계열보다 국가고시나 취업에 대한 명확한 취업방향

으로 취업준비행동이 높고, 전공에 대한 만족이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취업지원 부서 이용과 취업준비기간에 따라라도 취업준비행동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진로 및 취업지원 조직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없는 대학생보다 직업정보인지도가 증가하여 취업준비행동이 증가한다고 한 Chae [25]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Chae [25]는 이러한 결과로 진로 및 취업지원 조직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위한 유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 취업준비기간 및 우울로 나타났다. 이는 Park과 Ahn [26]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이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특히 교과 및 수업만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전공에 대해 만족할수록 취업을 위한 자기이해 뿐만 아니라 현상인식과 정보수집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여[27] 전공이 취업준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전공별로 만족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공관련 내용과 취업준비행동을 확인해보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취업준비기간 또한 Hwang과 Cha [28]의 연구에서도 취업준비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초기 취업준비를 위해 취업준비기간이 짧은 학생들을 파악하여 취업지원 부서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을 저학년년부터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학 중 전공에 맞춘 대학 내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준비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우울을 보면, 우울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고 한 연구 [29]와 취업스트레스가 높으면 예비적 직업탐색과 적극적 직업탐색의 취업준비행동이 높아진다는 연구[30]를 볼 때 본 연구결과처럼 고학년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Bae와 Kang [31]의 취업상태에 따른 우울 정도에서도 취업 진행중인 경우에서 우울이 높게 나타난바 있어 취업준비행동을 하는데 증중도 이상의 우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ae와 Kang [31]은 높은 취업장벽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야기하므로 취업지원체계를 활성화하여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Jo와 Park [32]은 취업과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성공경험을 모델링 할 수 있는 학과 선배나 동아리 멘토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여 우울로 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외에 심리적인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병행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성별에 따라 구분한 Kweon [8]의 연구결과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하위영역의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을 덜 경험할수록 취업준비행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과가 취업준비행동과 관련이 없다고 하여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고학년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 혹은 희망직종이 명확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역기능적 진로사과에 대한 전공별, 학년별 비교 연구를 통해 저학년때부터 취업준비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경험한 3, 4학년의 고학년 대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취업불안, 우울, 역기능적 진로사과 및 취업준비행동을 확인하고,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고학년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은 전공, 취업준비기간, 우울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학년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과 취업준비기간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전공에 맞춘 맞춤형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우울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이 나타나 취업준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고학년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우울 단계 확인 및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로 연구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 학생들만을 중심으로 시행한 부분으로 전공별 맞춤형 취업준비의 필요성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한 취업준비 대학생들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M.W. Chi, J.Y. Lee, "The effect of job-seeking anxiety on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in the COVID-19 pandemic: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9 No.4, pp.105-120, Aug. 2022.
DOI: <https://doi.org/10.20496/cpew.2022.9.4.105>
- [2] Y.J. So, J.S. Park,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anxiety",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6, No.4, pp.23-44, Dec. 2016.
DOI: <https://doi.org/10.35273/jec.2016.6.4.002>
- [3] C.B. Lee, M.J. Kim,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undergraduat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3, No.11, pp.89-100, Jun. 2023.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11.89>
- [4] K.C. Boo, J.H. Lim, "A study on th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b preparation behavior, and job search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general students and current students eligible for employment scholarships",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Vol.22, No.1, pp.223-234, Feb. 2022.
- [5] J.T. Kim, "Keywords for young job seekers' emotions due to employment difficulties: Anxiety, helplessness, depression", *NEWSIS*. 2021 May 6: Sect. 01.
- [6] R. Agnew,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30, No.1, pp.47-88, Feb. 1992.
DOI: <https://doi.org/10.1111/j.1745-9125.1992.tb01093.x>
- [7] Y.K. Au, D.G. Kim, Y.J. Chung, J.Y. Lee,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est for college student", *The Korea Education Review*, Vol.17, No.3, pp.267-291, Oct. 2011.
- [8] H.S. Kweon, "The effect of the big five personality types,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gender",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35, No.2, pp.45-64, Dec. 2014.
- [9] W.Y. Na, D.H. Lee, "The effects of chance coping skills, career adaptability,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on college students' job anxiety",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Conference Proceedings*, Vol.8, pp.801-801, Aug. 2016.
- [10] J.Y. Lee, Y.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orean Society for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Vol.26, No.1, pp.113-140, Mar. 2022.

- DOI: <https://doi.org/10.35184/kshce.2022.26.1.113>
- [11] J.H. Kim, M.J.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upport from parents and caree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7, No.3, pp.355-377, Sep. 2016.
DOI: <https://doi.org/10.15753/aje.2016.09.17.3.355>
- [12] M.J. Cho, "Effect of withdrawal of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on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for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1-95, 2014.
- [13] J.A. Kim,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n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artoon animation-Focusing on the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and occupation values-", *The Korean Society of Culture and Convergence*, Vol.44 No.11 pp.335-346, Nov. 2022.
DOI: <https://doi.org/10.33645/cnc.2022.11.44.11.335>
- [14] S.S. Ahn, I.S.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occupational values on the job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2, No.2, pp.51-71, Jun. 2022.
DOI: <https://doi.org/10.35273/jec.2022.12.2.003>
- [15] S.N. Lee, J.S. Han, "The impact of the employment anxiety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s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ourism & Leisure Research*, Vol.34 No.6, pp.321-336, Jun. 2022.
DOI: <https://doi.org/10.31336/JTLR.2022.6.34.6.321>
- [16] F. Faul, E. Erdfelder, A.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May.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17] M.S. Song, H.S. Jung, "Influences of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on employment barrier of the education major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8, pp.132-139, Aug.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8.132>
- [18] M.S. Song, H.S. Jung,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efficacy of college students: Focused o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3 pp.160-168, Mar.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3.160>
- [19] G.P. Cho, "A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job-seeking anxiety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46 No.2, pp.53-75, Jan. 2008.
- [20] K.K. Chon, S.C. Choi, B.C. Yang,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6, No.1, pp.59-76, Jun. 2001.
- [21] J.C. Lee, I.H. Choi, M.J. Park,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career thought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5, No.3, pp.529-550, Aug. 2003.
- [22] S.W. Yun, "Structural relationship of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confirmation biases and job-seeking anxiety of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Kyonggi, Korea, pp.1-126, 2017.
- [23] C.J. Jeong, Y.D. Yoo, H.S. Yang, H.J. Kang, M.K. Kim, "A study on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stress among health and non-health department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C-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s*, Vol.20, No.1, pp.13-24, Jun. 2023.
- [24] Y. Seo, E.J. Chae, H.M. Lee, J.Y. Kang, E.S. Kim, S. Lee, S.H. Shin, "Influence of core nursing skills performance confide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job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17, No.4, pp.135-142, Nov. 2022.
DOI: <https://doi.org/10.21097/ksw.2022.11.17.4.135>
- [25] H.W. Chae, "The effect of job information recognition level on job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the effect of controlling the use of universities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organization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3, No.8, pp.378-388, Aug. 2023.
DOI: <https://doi.org/10.5392/JKCA.2023.23.08.378>
- [26] S.J. Park, S.S. Ah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ISC behavioral types of university students on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paration behavior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3, No.1, pp.121-145, Mar. 2023.
DOI: <https://doi.org/10.35273/jec.2023.13.1.006>
- [27] E.J. Han, B.M. Hwang, "A study on undergraduat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university major and vocational activities in Jeon-nam are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7, No.4, pp.1099-1114, Aug. 2016.
- [28] S.W. Hwang, H.S. Cha, "Factors influenc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5, pp.131-140, May.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5.131>
- [29] M.K. Cho, E.J. Choi, J.W. Lee, Y.N. Lee, J.Y. Chae, "Correlations in appearance,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in undergraduat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0, No.2, pp.141-150, Oct. 2013.
- [30] S.M. Hong,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the hospitality industry o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mid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Vol.36, No.6, pp.1-24, Sep. 2021.

DOI: <https://doi.org/10.21719/IJTMS.36.6.1>

- [31] E.S. Bae, H.S. Kang,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family fun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2, No.4, pp.181-192, Jun. 2018.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18.6.12.4.181>
- [32] H.N. Jo, H.J. Park, "Moder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ment and social support between college students'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23, pp. 237-251, Dec. 2022.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23.237>
-

송 민 선(Min Sun Song)

[중신회원]



- 200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2013년 2월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만성질환간호, 노인간호

정 헌 식(Hun Sik Jung)

[정회원]



- 2005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12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3년 3월 ~ 2015년 2월 : 건양대학교 강의전문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조직변화, 조직행동,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